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가 「부인의 용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for Household Management and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on Wives' Personal Expenses

일본 히로사키대학 교육학부
전임강사 이 수 진

Faculty of Education, Hirosaki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ujin L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Referenc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for household management” and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on wives' personal expense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GENS Korea Panel Survey of Ochanomizu University. The responses were gathered from married people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comprised of 473 married women. ANOVA and multiple-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13.5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ve zero personal expenses. Second, the personal expenses among the wives differed depending on their annual average income levels. Also, their personal expenses differed based on their type of employment. Third, the “expenditure ratio for family” and “expenditure ratio for children” negatively affected their personal expenses. Fourth, the women who had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ir households had lower personal expenses than the others.

주제어(Key Words) : 가계관리 특성(characteristics for household management),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부인의 용돈(wives' personal expenses)

I. 서론

가계는 가족구성원 각자의 관리하에 있는 개별가계(個計)와 가족 공동을 위해 배분되고 관리되는 가족가계로 구성되며 개별가계와 가족가계 간에는 금전의 이전이 이루어진다(Mifune, 2004). 개별가계와 가족가계 간의 금전 이전의 예로 가구의 총 소비지출 중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즉 용돈으로 배분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총 소비지출 중에서 부인의 용돈으로 배분되는 몫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정 내에서의 부부간의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직접적으로 부인의 용돈을 소재로 다루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는 가계비와는 별도로 부인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부인의 정서적 만족감, 부부관계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생활의 다양화 및 개인별 소비의 증대 등으로 인해 가족가계 내에서의 개별가계의 규모가 커짐에도 가계는 공동성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간에 돈에 관해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배경 등도 한 몫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저생활비가 성별, 연령별 개인생활비와 가구원 수별 가구생활비를 계산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생활비는 개인별 생활비와 가구원 수별 가구생활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Mifune와 Sigekawa(1999)의 논의에서와같이 가구 내에 있어서 부인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비와 부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부인의 용돈을 구분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계비는 주로 부인이 관리하는 유형이 보편적인 형태이다(Han & Lee, 1998; Lee, 2010b). 부인이 가계비관리 주체가 되므로 인해서 부인의 용돈과 가계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가계가 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인이 자신을 위한 지출보다는 가족을 위한 지출을 우선시하거나 혹은 가족의 가계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부인을 위한 지출을 줄이는 등의 경향도 보인다(Mifune, 2006; Vogler, 1994). 결국, 가계비와 개인을 위한 용돈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한 용돈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많은 경우 가계사정에 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가족가계에서 남편의 용돈으로 배분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면(Burgoyne, 1990), 부인의 용돈은 액수, 시일 등의 규칙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인의 용돈으로 할당되는 몫이 가계비(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인이 운용하는 개별가계의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부인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가계에 부인의 용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부인의 용돈으로 배분되는 몫이 있는지,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부인의 용돈수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가계의 어떤 특성이 부인의 용돈수준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인의 용돈수준과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가 부인의 용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부인의 개별가계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부인의 용돈」의 가계 내에서의 부인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계관리 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부인의 용돈수준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용돈이라고 하는 부인의 개별가계의 확보는 부인의 생활만족도 및 부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인의 생활만족도 및 부부관계만족도 등의 향상을 위해 개별가계의 관리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등 가계관리차원에서의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개인을 위해 소비되는 개인별 소비액에 주목해서 부인 자신을 위한 소비지출이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와 가구원 간의 지출배분을 다룬 연구, 개인별 소비액과 관련이 있는 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가계에 있어서의 부인을 위한 소비지출액

Pahl(1994)은 영국의 부부 102쌍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출과 여가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조사대상 남편 중 44%가 자기자신을 위해 쓸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인의 경우는 28%만이 자신을 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비용에 한정해서 보면 남편의 86%가 여가 활동을 위해 개인적 소비를 하고 있으나 부인의 경우 67%만이 여가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ris(1993)는 20세에서 55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남편의 취업형태별로 나누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있는지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자유재량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남성응답은 약 25% 내지 30%, 여성응답은 약 10% 내지 15%로 나타났으며, 즉 자기 자신의 자유재량의 돈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자유재량의 돈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Ahrne과 Roman(2001)은 스웨덴의 남녀 1,281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68%, 여성은 86%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돈이 적다고 하는 다른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일본의 경우, 20세에서 59세의 기혼남녀 1,160명을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의 용돈액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인의 한 달 용돈의 평균은 2만 3,263엔, 남편의 한 달 용돈의 평균은 3만 4,404엔으로 나타났다(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2011, November 17).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 사는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한 달에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이 4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34.2%, 5만원에서 8만원이라는 응답은 31.8%로 한달 용돈으로 8만원이하인 주부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2, June 14).

가족 간의 지출배분을 분석한 Lazear과 Michael(1988)의 연구에서는 부부와 세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있어서 가구 전체 소비의 59.2%를 자녀를 위해서, 37.2%를 남편을 위해서, 3.6%를 부인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2. 부인의 개인별 소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부의 소득수준 및 부인의 취업형태

Maeda, Yumoto와 Matumura(1971)는 부인의 취업형태와 개인별 소비지출배분의 관계에 주목하고 부인의 취업형태를 전문기술직군, 사무직군, 공장노동직군, 전업주부군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남편의 경우, 전업주부군, 전문기술직군, 사무직군, 공장노동직군의 순으로 남편의 소비지출배분율이 많았다. 한편 부인의 개인별 소비지출배분율은 반대로 전문기술직군, 사무직군, 공장노동직군, 전업주부군의 순으로 많았다. Murozumi(2000)는 Maeda의 연구를 토대로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부인의 직업군에 관계없이 남편의 개인별 소비지출배분율이 부인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형태는 전문기술직군으로 남편의 25.8%에 비해서 부인은 24.2%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공장노동직군으로 남편의 소비지출배분율이 29.0%인 것에 비해 부인의 소비지출배분율은 20.4%인 점을 밝혀냈다. 전문기술직군의 부인의 소비지출배분율이 높은 것은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으나 공장노동직군의 부인의 소비지출배

분율이 낮은 것은 부인 자신의 소득수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부인의 낮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남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Murozumi는 해석하고 있다.

Mifune와 Sigekawa(1999)는 가계경제연구소의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전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 소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가계비에서 부인을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 가장 많았으며 무직에서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직업이 있던 상태에서 무직이 된 경우, 무직상태가 계속된 경우의 순으로 점점 줄어드는 점도 확인하였다. Lee(2010a)은 FGENS패널조사데이터를 이용해서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부인의 취업형태의 변화와 부부의 개인별 소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부인이 직업이 있던 상태에서 무직이 된 경우, 가구의 총지출에서 부인을 위한 지출과 부인을 위한 지출이 모두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무직에서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직업을 가지게 된 직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

Ahrne과 Roman(2001)는 개인용 신용카드 소유율을 조사하였는데 부부가 같은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는 10명 중 6명의 여성이 개인용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의 소득이 부인보다 많은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10명 중 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웨덴의 화폐단위로 한달평균 1만 7천크로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여성의 4분의 3이 개인용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나 월평균 소득이 9,000크로나 이하인 경우에는 소유율이 3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계관리특성

자녀를 위한 지출, 생활비의 부족상황, 가계비 관리유형 등의 가계관리특성과 부인을 위한 지출과의 관련에 주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Murozumi(2000)는 자녀를 위한 지출과 부인을 위한 지출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면 부인을 위한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Vogler(1994)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인을 위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Ahrne과 Roman(2001)은 스웨덴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 배우자에서 물어보지 않고 자신에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부부의 개인별 소비와 가구의 경제상태에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는 배우자와 이야기할 필요없이 수백크로나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계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그러한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Burgoyne(1990)는 가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지출을 억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돈의 소비에 관한 긴장감이 없는 것을 밝혀내었다. 가계비 관리유형이 부인을 위한 지출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연구(Mifune, 1995; Vogler, 1994)에 의하면 부부의 수입 전부를 가족의 공동의 지갑에 넣어서 부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가계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구의 부인에 비해서 자신을 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서구의 연구에서는 개인별 소비와 부부관계의 불평등성에 주목하고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Burgoyne, 1990; Singh, 1997; Tichenor, 1999).

Burgoyne(1990)는 30대에서 50대의 13명의 부인과 그들의 파트너 중 9명을 대상으로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소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돈에 대한 인식을 검증하였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공동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인들의 태도를 보면 가족과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Singh(1997)는 37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혼관계와 돈에 관해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편이 부인들의 개인적 소비를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부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소비에 대해서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밝혀내었다. Tichenor(1999)는 부인이 남편보다 수입과 직업지위가 높은 부부 22쌍과 남편이 부인보다 수입과 직업지위가 높거나 혹은 같은 부부8쌍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부인이 남편보다 수입과 직업지위가 높은 22쌍의 남편 중에서 32%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인이 별도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4%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부의 소득수준 및 취업형태, 가계관리특성,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등이 부인의 용돈수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가 부인의 용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인의 용돈수준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가계관리특성·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부인의 용돈수준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부인의 용돈수준은 가계관리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부인의 용돈수준은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는 부인의 용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 이용한 데이터는 F-GENS Korea Panel Survey¹⁾ 2007(fifth wave survey) 데이터이다. 조사는 2007년 6월 부터 8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8~47세²⁾ (2007년 1월 1일 현재)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성별, 본인이력(연령, 학력, 취업이력, 결혼이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이력(연령, 학력, 취업이력)등의 회고적 데이터와 본인과 배우자의 취업형태, 가계관련 요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평균소득 및 비목별 소비지출, 소비주체별 소비지출, 가계관리자,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 수입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및 돈의 사용방법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자신을 위한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분석대상은 부인의 용돈 및 분석에 필요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이용가능한 기혼여성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1) 부인의 용돈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이 가계소비지출

1) F-GENS Korea Panel Survey는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COE프로그램「젠더연구의 프론티어」의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의「가족·일·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자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Purpose of Research and Method(Ch.1)」『Report about Korea Panel Survey on Work, Family and Gender (First year)」, (Mifune & Lee, 2005)을 참조하기 바람.

2) 제1차년도(2004년 1-2월 실시)조사는 25-44세(2004년 1월 1일 현재)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목 중 부인의 용돈란에 기입한 금액을 「부인의 용돈」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가계의 소비지출 비목 중 한 항목으로 부인의 용돈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과 다음 절에 제시하는 가족원 중 소비주체별 소비지출에 대한 질문에서 부인을 위한 지출에 대한 응답을 모두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인 자신의 용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부인의 용돈명목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추출하기 위해서 비목별 지출 중의 부인의 용돈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가구의 지난 1년간의 월평균지출을 비목별로 응답하게 하였고 식비(외식·급식비 포함), 의류·신발, 교통비(자동차 구입비·연료비·정기승차원 포함), 통신비(우편·전화비·컴퓨터 통신 등), 교육비(수업료·수험료·학원비·교재비 등), 교양·오락비(취미를 위한 교습비, 교양·오락용의 내구재 등), 교제비(친구만남·데이트비용),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남편의 용돈, 부인의 용돈, 자녀의 용돈, 그 외의 비용(가구·전자제품·정조사비 등)의 비목이 포함되었다. 해당비목의 지출액이 없었던 경우에는 0이라고 응답하게 하였다.

2) 부인의 용돈 관련변수

선행연구를 참고로 부인의 용돈과 관련이 있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 가계관리 특성,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서 선정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연평균소득과 부인의 취업형태를, 가계관리특성으로는 가족공동, 남편, 자녀를 위한 각각의 지출비율,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 가계관리자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로는 수입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돈의 사용방법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자신을 위한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을 포함시켰다. 그 외의 통제변수로 학력과 결혼년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계관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족공동, 남편,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하였다. 비목별 월평균지출과는 별도로 소비주체별 소비지출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액, 부인을 위한 지출액, 남편을 위한 지출액, 자녀를 위한 지출액, 그 외의 사람을 위한 지출액에 대한 응답을 얻었으며 이를 합산하여 가계의 지출총액을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계의 지출총액에 가족공동, 남편, 자녀를 위한 지출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에 대해서는 「귀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돈을 아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1) 자주있다 (2) 가끔있다 (3) 거의 없다 (4) 전혀없다라는 응답을 얻었으며, 분석에는 전혀없다(1점)~자주있다(4점)으로 역코딩하여 이용하였다. 가계관리자에 대해서는

「귀 댁에서는 누가 가계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1) 주로 남편이 책임을 지고 있다 (2) 전적으로 남편이 책임을 지고 있다 (3)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4) 주로 부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 (5) 전적으로 부인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응답을 얻었으며 (1)과 (2)를 합해서 (1) 남편관리, (2) 공동관리, (4)와 (5)를 합해서 (3) 부인관리로 재분류하였고 분석에는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입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및 돈의 사용방법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은 「부부 간에는 수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한다», 「부부 간에는 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1점) 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5점)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자신을 위한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은 「나 자신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들인다」에 대해서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얻었으며 이를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부인의 용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인의 용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인의 용돈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 인구학적 요인, 가계관리특성,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석모형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모형 1은 독립변수로서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에 가계관리특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또한 모형 3은 모형 2에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를 추가한 모형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부인의 용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Table 1 참조). 먼저 가계관리특성을 보면,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비율은 평균 40%이며, 30%미만은 18.8%, 40%미만은 22.8%, 50%미만은 30.7%, 50%이상은 27.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편을 위한 지출비율은 평균 13%이고, 가계 총 지출의

Table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47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age 28-37	161(34.0)
		age 38-47	312(66.0)
		Average age	39.5
	Education	high school and lower	245(51.8)
		university and higher	228(48.2)
	Years of marriage	under 5	25(5.3)
		5 to 9	92(19.5)
		10 to 14	143(30.2)
		15 to 19	135(28.5)
		over 20	78(16.5)
		Average	13.7years
	Annual average income of husband	under 25 million won	121(25.6)
		under 35 million won	109(23.0)
		under 45 million won	105(22.2)
		over 45 million won	138(29.2)
		Average	36 million 740 thousand
	Employment type of wife	full-time	55(11.6)
		part-time	44(9.3)
self employed		130(21.8)	
housewife		271(57.3)	
Annual average income of wife	no income	270(57.1)	
	under 15 million won	77(16.3)	
	under 25 million won	70(14.8)	
	over 25 million won	56(11.8)	
	Average	8 million 400 thousand	
Expenditure ratio for family	under 30%	89(18.8)	
	30 to 39%	108(22.8)	
	40 to 49%	145(30.7)	
	over 50%	131(27.7)	
	Average	44%	
Expenditure ratio for husband	under 10%	198(41.9)	
	10 to 14%	114(24.1)	
	over 15%	161(34.0)	
	Average	13%	
Expenditure ratio for children	under 20%	121(25.6)	
	20 to 29%	110(23.3)	
	30 to 39%	114(24.1)	
	over 40%	128(27.1)	
	Average	31%	
Frequency of personal expenditure saving for family living expenses	frequently	271(45.9)	
	occasionally	235(49.7)	
	rarely	21(4.4)	
Manager of household economy	mainly husband	66(14.0)	
	joint management	118(25.0)	
	mainly wife	289(61.1)	

Table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47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disagree	38(8.1)
	neither agree nor disagree	65(13.7)
	agree	370(78.2)
	disagree	14(3.0)
	neither agree nor disagree	42(8.9)
	disagree	417(88.2)
I spend money and time in adorning myself	agree	234(49.5)
	disagree	239(50.5)
Wives' Personal Expenses	no allowance	64(13.5)
	under 100 thousand won	67(14.2)
	100 thousand won	192(40.6)
	100 thousand to 200 thousand won	107(22.6)
	over 200 thousand won	43(9.1)
	Average	124thousand
	0%	64(13.5)
Ratio of wives' personal expenses in total household expenditure	under 3%	70(14.8)
	under 5%	151(31.9)
	under 7%	76(16.1)
	over 7%	112(23.7)
	Average	5%

10%미만을 차지한다는 응답은 41.9%로 가장 많았고 15%이상이 34.0%로 그 다음을 이었고 15%미만은 24.1%였다.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은 평균 31%였으며 40%이상이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고 20%미만은 25.6%, 40%미만은 24.1%, 30%미만은 23.3%의 분포를 보였다.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는 '가끔있다'가 49.7%, '자주있다'가 45.9%였으며, '거의 없다'는 4.4%에 불과했고 '전혀없다'는 응답은 없었다. 가계관리자는 '주로 부인'이 61.1%로 가장 많았고 '부부공동'이 25.0%로 그 다음을 이었고 '주로 남편'은 14.0%였다.

다음으로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는 수입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한 응답이 78.2%였으나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포함한 응답은 8.1%였다. 한편 돈의 사용방법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한 응답이 88.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를 포함한 응답은 3%에 불과하였다. 수입과 돈의 사용방법 모두 부부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수입보다는 돈의 사용방법에 관해서 부부간에 이야기할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자신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각각 약 50%로 거의 동일하였다.

부인의 용돈은 평균 12만 4천원이었으며, 부인의 용돈을 0라고 기입한 사람은 64명으로 13.5%에 달하였다. 부인의 용돈이 10만원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10-20만원이라는 응답이 22.6%로 그 뒤를 이었다. 10만원 미만은 14.2%, 20만원 이상은 9.1%였다. 가계 총 지출에서 부인의 용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평균 5%였다.

2. 사회 인구학적 특성 · 가계관리특성 ·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계관리특성,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 남편의 연평균소득, 부인의 취업형태, 부인의 연평균소득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졸이하의 학력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높았는데 각각 평균 10만 2천원과 1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평균소득별로 보면 4,5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부인의 용돈이 16만 8천원으로, 2,500만원 이하, 3,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그룹의 약 11만원에 비해서 많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취업형

Table 2.
Wives' personal expenses by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473)

Characteristics		Result	Average (unit: thousand won)	SD	Ftest/ t-tes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	high school and lower university and higher	102.4	72.1	23.55 ***
			147.5	124.6	
	Years of marriage	under 5	132.00	78.9	0.25
		5 to 9	124.2	109.2	
		10 to 14	118.1	100.0	
		15 to 19	125.1	110.1	
		over 20	131.00	98.2	
	Annual average income of husband	under 25 million won	106.2 _b	89.5	12.71 ***
		under 35 million won	104.2 _b	80.0	
		under 45 million won	107.7 _b	74.9	
over 45 million won		168.2 _a	132.8		
Employment type of wife	full-time	170.2 _a	117.5	6.24 ***	
	part-time	130.5 _{ab}	81.8		
	self employed	136.1 _{ab}	102.5		
	housewife	109.2 _b	100.6		
Annual average income of wife	no income	106.6 _a	94.6	13.08 ***	
	under 15 million won	110.7 _a	76.5		
	under 25 million won	156.6 _b	111.1		
Characteristics for household management	Expenditure ratio for family	over 25 million won	186.6 _b	130.6	1.99
		under 30%	140.3	121.4	
		30 to 39%	131.4	108.6	
		40 to 49%	123.4	101.8	
	Expenditure ratio for husband	over 50%	108.00	83.9	4.25 *
		under 10%	108.8 _a	93.8	
		10 to 14%	142.0 _b	113.4	
	Expenditure ratio for children	over 15%	130.4 _{ab}	104.8	2.82 *
		under 20%	136.7 _a	108.8	
		20 to 29%	137.6 _a	103.5	
30 to 39%		119.6 _{ab}	106.4		
Frequency of personal expenditure saving for family living expenses	over 40%	104.8 _b	91.9	7.12 ***	
	frequently	105.2 _a	90.2		
	occasionally	138.8 _b	112.8		
Manager of household economy	rarely	155.2 _b	85.9	1.46	
	mainly husband	136.4	120.4		
	joint management	133.1	81.5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A married couple must tell each other about personal income	mainly wife	117.8	106.7	0.44
		disagree	145.8	86.4	
		neither agree nor disagree	111.7	76.4	
	A married couple must tell each other about how / where to spend money	agree	124.3	104.9	0.03
		disagree	121.4	84.8	
		neither agree nor disagree	127.4	98.9	
	I spend money and time in adorning myself	disagree	123.9	104.4	36.91 ***
agree		152.3	107.5		
		disagree	967.0	91.1	

Note. Scheffe multiple-comparison test

a, b, c is result of scheffe multiple-comparison test. Different incicator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pair of means.

*P < .05. **P < .01. ***P < .001.

태별로 보면 전일제가 약 17만원, 시간제 및 자영업이 약 13~4만원,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약 11만원이었고,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와 전업주부의 경우에 부인의 용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평균소득별로 보면 수입이 없는 경우는 10만 6천원, 1,500만원 이하 그룹은 11만원, 2,500만원 이하 그룹은 15만 6천원, 2,500만원 이상 그룹은 18만 6천원으로 부인의 연평균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입이 없는 그룹과 2,500만원 이하 그룹, 수입이 없는 그룹과 2,500만원 이상의 그룹의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한편 결혼년수를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부인의 용돈은 완만한 U형 곡선의 변동을 보이는데 즉 5년 미만일 때가 부인의 용돈이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들어서 15년 미만에서 가장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계관리특성별로 부인의 용돈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편을 위한 지출비용,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에 따라서 부인의 용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을 위한 지출비용별 부인의 용돈수준을 보면 남편을 위한 지출비용이 10% 미만일 때는 10만 8천원, 15% 미만일 때는 14만 2천원, 15% 이상일 때는 13만원이었다. 특히 10% 미만인 그룹과 15% 미만의 그룹의 부인의 용돈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별로 보면 대략적으로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이 커질수록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20% 미만인 그룹과 40% 미만의 그룹의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가 두드러 지는데 각각 13만 7천원, 10만 5천원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별로 보면 '자주 있다'고 응답한 그룹은 10만 5천원으로 '가끔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13만 9천원, '거의 없다'고 응답한 그룹의 15만 5천원보다도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인의 용돈수준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가계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달라지는지를 본 결과, '주로 남편' 혹은 '부부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룹보다 '주로 부인'이 관리하는 그룹에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와 부인의 용돈수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신을 가꾸는데 있어서의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유무에 따라서는 부인의 용돈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투자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약 15만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9만 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에 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돈의 사용방법에 대한 부부간의 대화의 필요성 각각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과 찬성하지 않는 그룹간의 부인의 용돈수준을 살펴보면 부부간에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룹과 찬성하는 그룹은 각각 14만 5천원과 12만 4천원으로 부인의 용돈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부부간에는 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룹과 찬성하는 그룹사이에는 부인의 용돈수준에 대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계관리특성,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와 부인의 용돈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F 검증/ t 검증결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 남편과 부인의 연평균소득, 부인의 취업형태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특성 중에서는 남편을 위한 지출비용과 자녀를 위한 지출비용,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중에서는 자신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유무에 따른 부인의 용돈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인의 용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Appendix 참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을 살펴 본 결과, 다중공선성을 일으킬 정도의 높은 수준의 상관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차한계 및 VIF 값도 확인하였다. 공선성의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은 공차한계 0.1이하, VIF 10이상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는 0.56에서 0.98사이, VIF 는 1.03에서 1.97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가계관리특성과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가 부인의 용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F 값의 검정결과로 보면 모형 1에서 모형 3까지의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모형 1의 설명력은 약18%, 모형 2의 설명력은 약25%, 모형 3의 설명력은 약28%였다.

모형 1의 추정결과를 보면, 남편의 연평균소득과 부인의 연평균소득이 부인의 용돈수준에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연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하일 때에 비해서 4,500만원 이상일 때 부인의 용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이 수입이 없는 경우에

Table 3.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for household management and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on wives' personal expenses

	model1		model2		model3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s】						
Education (ref: high school and lower)						
University and higher	2.487	.120*	2.500	.121**	2.712	.131**
Years of marriage (ref: over 20)						
under 5	-3.613	-.078	-5.674	-.123*	-6.074	-.132**
5 to 9	-.974	-.037	-2.134	-.082	-2.533	-.097 †
10 to 14	-2.063	-.092	-2.275	-.101 †	-2.613	-.116**
15 to 19	-1.497	-.066	-1.013	-.044	-1.226	-.054
【Socio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nual average income of husband (ref: under 25 million won)						
under 35 million won	1.228	.050	.858	.035	.300	.012
under 45 million won	2.393	.096 †	2.022	.081	1.270	.051 †
over 45 million won	7.908	.348***	7.047	.311***	6.142	.271***
Employment type of wife (ref: Housewife)						
full – time	2.918	.091	2.968	.092 †	2.997	.093
part – time	1.544	.043	1.461	.041	1.269	.036
self employed	.266	.011	.672	.027	.700	.028
Annual average income of wife (ref: no income)						
under 15 million won	1.529	.055	1.312	.047	.935	.033
under 25 million won	5.719	.197**	4.974	.171**	4.214	.145**
over 25 million won	7.852	.246***	7.863	.246***	7.317	.229***
【Characteristics for household management】						
Expenditure ratio for family (ref: under 30%)						
30 to 39%			-2.921	-.119*	-2.912	-.119**
40 to 49%			-4.249	-.190**	-4.056	-.181**
over 50%			-6.579	-.285***	-6.185	-.268***
Expenditure ratio for husband (ref: 10 to 14%)						
under 10%			-1.874	-.090 †	-2.067	-.099 †
over 15%			-1.855	-.085	-1.654	-.076
Expenditure ratio for children (ref: under 20%)						
20 to 29%			-1.252	-.051	-1.102	-.045
30 to 39%			-3.278	-.136*	-2.786	-.116*
over 40%			-7.383	-.318***	-6.661	-.287***
Frequency of personal expenditure saving for family living expenses			-2.507	-.140***	-1.965	-.110**
Manager of household economy (ref: mainly husband)						
joint management			-2.586	-.108 †	-2.731	-.115 †
mainly wife			-2.424	-.115 †	-2.193	-.104 †
【Attitudes toward household management】						
A married couple must tell each other about personal income					-.195	-.016
A married couple must tell each other about how / where to spend money					.352	.037
I spend money and time in adorning myself (ref: agree)					-3.767	-.183***
Constant	6.962	-	14.131	-	19.550	-
F	8.35***		7.26***		7.41***	
R ²	.203		.289		.319	
Adjusted R ²	.179		.249		.276	
N			473			

Note.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비해서 부인의 수입이 2,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 이상일 때 각각 부인의 용돈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력이 부인의 용돈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이하의 학력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일 때 부인의 용돈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에 가계관리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추정결과를 보면 가계관리특성으로 선정한 변수 모두 부인의 용돈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비율, 남편을 위한 지출비율,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은 부정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족공동, 남편,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이 가구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30% 미만일 때에 비해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을 위한 지출비율이 15% 미만일 때 보다는 10% 미만에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은 가구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 20% 미만일 때 보다 부인의 용돈수준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계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부인의 용돈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주로 남편이 가계를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 비해서 부부공동관리 혹은 주로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용돈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도 모형 1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1에서의 결과에 추가적으로 부인의 취업형태가 부인의 용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일 때보다는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을 때 부인의 용돈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력의 영향은 모형 1에서와 같으나 결혼년수의 영향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결혼년수가 20년 이상인 그룹에 비해서 5년 미만인 경우에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았다. 또한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았다. 모형 3은 모형 2에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를 추가한 모형이다. 추정결과, 부인이 자신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에 수입과 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는 의견은 부인의 용돈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 이외의 요인은 모형 1과 모형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았다.

모형 3을 기준으로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부인 용돈수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이었으며 특히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이 40% 이상일 때 부인의 용돈수준이 크게 감소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 비목 중 부인의 용돈에 주목하여 부인의 용돈수준과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계관리특성 및 가계관리에 대한 태도가 부인의 용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GENS Korea Panel Survey 2007(fifth wave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부인의 용돈 및 분석에 필요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이용가능한 기혼여성 4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부인의 용돈으로 할당되는 몫이 가계비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인이 운용하는 개별가계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인의 용돈은 부인의 개별가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이용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분석결과와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부인의 용돈이 없는 경우는 13.5%에 달하였으며, 부인의 용돈이 있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참고로 남편의 용돈이 0이라는 응답은 6.5%로 부인의 용돈이 없는 경우의 절반정도였다. 또한 남편의 용돈의 액수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는 응답이 약 절반을 차지하여 부인용돈의 약 2~3배임이 확인되었다. 남편의 용돈에의 배분과 부인의 용돈에의 배분에 있어서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Pahl(1994), Morris(1993), Murozumi(2000)의 연구와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남편과 부인의 용돈배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계비에서 남편의 용돈으로의 배분은 당연히 하는 반면 부인의 용돈은 가계의 상황에 맞게 변동하는 유동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부인의 연평균소득 및 취업형태별로 부인의 용돈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평균소득별로는 수입이 없는 경우가 수입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았다. 또한, 부인의 취업형태별로는 부인의 용돈수준이 전일제, 시간제 및 자영업, 전업주부의 순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와 전업주부의 경우에 부인의 용돈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eda 외(1971), Ahrne와 Roman(2001), Mifune와 Sigekawa(1999), Murozumi(2000), Lee(2010a) 등의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일 경우에 순수한 부인의 용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쉽게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urgoyne(1990)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인들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기위해서 가족의 공동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부인들은 개인적 소비에 대해서 정당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Singh(1997)의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

는 것처럼 부인의 용돈은 가족공동의 소비와는 별도로 부인으로 하여금 독립성이 보장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액수의 많고 적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부인의 용돈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더욱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운 전업주부의 경우 부인의 용돈의 배분에 가계관리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가계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달라지는지를 본 결과, 주로 남편 혹은 부부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룹보다 주로 부인이 관리하는 그룹에서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Vogler(1994)와 Mifhne(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인이 가계관리를 하였을 때 가계비와 부인의 용돈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한 부인을 위해 할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계비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빈도가 많을수록 부인의 용돈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계비의 부족현상을 부인을 위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가계비와 부인의 용돈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관리특성에 따라서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계비와 부인의 용돈의 경계를 지음으로써 부인의 용돈수준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자녀를 위한 지출비율은 부인의 용돈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는 Murozum(200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비율, 남편을 위한 지출비율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가족공동을 위한 지출비율, 남편을 위한 지출비율이 높아지면 부인의 용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계에서 개인가계로 금전이 이전될 때 가족공동, 남편, 자녀를 위한 지출이 부인을 위한 지출보다 우선시 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부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의 영역이 모호한 상태로 때로는 가족공동을 위한 생활비로, 때로는 자녀와 남편을 위한 소비지출에 할당되고 결국 부인의 용돈이라는 명목으로는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다섯째, 부인이 자기자신을 가꾸는데 돈과 시간의 투자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부인의 용돈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들로부터 가계비와 부인의 용돈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가계관리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시사되었다. 한편, 여기에서의 결과는 가계비와는 별도로 부인의 경제생활의 고유영역으로서의 부인의 용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인의 자발적인 행동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계에 있어서 부인의 용돈은 가족공동, 남편, 자녀 등을 위한 지출과 동일선상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가계관리자가 부인인 점, 이로 인해 가계비와 부인의 용돈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가계 위주로 가계가 운용된다는 점 등이 그 배경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는 부인의 개별가계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부인의 용돈」을 부인이 직접 부인의 용돈란에 기입한 액수로 단순화하여 정의하고 분석을 하였으나 「부인의 용돈」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의 및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부인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부인의 독립적인 경제생활 영역으로서 부인의 용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관리차원에서의 배려 및 부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남편과 부인이 부인의 용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필요성을 느끼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인의 용돈이 남편과 부인, 부부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또한 남편의 용돈수준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남편의 용돈과 부인의 용돈이 남편과 부인에게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 등의 비교고찰을 통해서 가족가계에서 개별가계로 이전되는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남편과 부인의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작업도 이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Reference

- Ahrne, G., & Roman, C. (2001). *Hidden Power in Family- The ideal and the real of the equal community in Sweden*. (Japan-Sweden Comparative Family Research Society & Tomoko Hansson, Trans.). Tokyo: Aokishoten.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Burgoyne, C. B. (1990). Money in Marriage: How Patterns of Allocation Both Reflect and Conceal Power. *The Sociological Review*, 38(4), 634-665.
- Han, J-S., & Lee, Y-S. (1998). Money management and control of family finances patterns of urban

-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1), 1-14.
- Kim, Y-H. (1992, June 14). Life news by picture. *The Hankyoreh*, p. 8.
- Lazear, E. P., & Michael, R. T. (1988). Allocation of Income within Househo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S-J. (2010a). Gender Gap between Wives and Husbands with Regard to Personal Expenditure and Personal Savings in Korea-Time Series Analysis using the F-GENS Korea Panel Survey. *Journal of Home Economics of Japan*, 61(2), 59-71.
- Lee, S-J. (2010b). Patterns of income and 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s and determinants within dual-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0), 51-64.
- Maeda, M., Yumoto, K., & Matumura, Y. (1971). Consideration about Distribution System of Household and Analysis of Dual-earner Household. In M. Nakabachi (Ed.), *Family Life Cycle and Household Structure* (pp. 71-72). Tokyo: Shiseido.
- Meij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2011, November 17). *Survey of nice couple's day*. Retrieved November 18, 2011, from <http://www.hoken-joho.co.jp/houjin/iifuufunohi11.22.pdf>.
- Mifune, M., & Lee, S. (2005). Purpose of Research and Method(Ch.1). In Project B of Frontiers of Gender Studies from OCHANOMIZU UNIVERSITY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Ed.), *Report about Korea Panel Survey on Work, Family and Gender (First Year)* (pp. 1-8). Tokyo: OCHANOMIZU UNIVERSITY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 Mifune, M., & Sigekawa, J. (1999). Wife's Employment Pattern, Household Expenditure and Household Management System. In Y. Higuchi & M. Iwata (Eds.), *Marriage, Childbirth, Employment, Consumption and Savings of Modern women based on Panel Survey* (pp. 127-145). Tokyo: Toyo Keizai Inc.
- Mifune, M. (1995). Economic Relations in Household and Gender Gap between Husband and wife. *Quarterly Research on Household Economics*, 25, 57-67.
- Mifune, M. (2004).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of family. In The Japan Society of Home Economics (Ed.), *Home Economics Dictionary* (p. 213). Tokyo: Asakurasyouten.
- Mifune, M. (2006). Housework and Household Economy management (Ch. 11). In Project B of Frontiers of Gender Studies from OCHANOMIZU UNIVERSITY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Ed.), *Report about Korea Panel Survey on Work, Family and Gender (Second Year)* (pp. 125-144). Tokyo: OCHANOMIZU UNIVERSITY The 21st Century COE Program.
- Morris, L. (1993). Household Finance management and the labour Market: A Case Study in Hartlepool. *The Sociological review*, 41(3), 506-536.
- Murozumi, M. (2000). Destination of Household Research (Ch. 7). In M. Murozumi (Ed.), *Household view from Generation and Gender* (pp. 115-173). Tokyo: Houritubunnkasya.
- Pahl, J. (1994). *Money and Marriage*. (M. Murozumi, K. Kimura, & M. Mifune, Trans.). Kyoto: Minervashobo.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Singh, S. (1997). Marriage Money: The Social Shaping of Money in Marriage and Banking. Australia: Allen and Unwin.
- Tichenor, V. J. (1999). Status and Income as Gendered Resources: The Case of Marital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38-650
- Vogler, C. (1994).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In M. Anderson, F. Bechhofer & J. Gershuny (Eds.), *Money in the Household* (pp. 225-26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접 수 일 : 2011년 12월 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2일

Appendix.
Correlation among independent variables (N = 473)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Education	1.000												
2. Years of marriage	-.292***	1.000											
3. Annual average income of husband	.300***	.011	1.000										
4. Employment type of wife	.053	.006	.209***	1.000									
5. Annual average income of wife	.108*	.036	-.156***	-.548***	1.000								
6. Expenditure ratio for family	-.029	-.123**	.085	.079	-.027	1.000							
7. Expenditure ratio for husband	.049	-.180***	.075	.000	-.035	-.093*	1.000						
8. Expenditure ratio for children	-.041	.319***	.045	-.012	-.037	-.560***	-.313***	1.000					
9. Frequency of personal expenditure saving for family living expenses	-.015	.031	.064	.005	-.030	-.042	-.040	-.035	1.000				
10. Manager of household economy	-.098*	.042	-.091*	.008	.003	.073	.012	-.039	-.008	1.000			
11. A married couple must tell each other about personal income	.056	-.016	.089	-.007	.034	-.026	-.029	.011	-.003	.075	1.000		
12. A married couple must tell each other about how/where to spend money	.067	-.008	.044	.012	.011	.009	-.062	.032	-.088	-.008	.565***	1.000	
13. I spend money and time in adorning myself	-.025	.083	-.109*	.077	.100*	.013	.008	.104*	-.213***	.060	.023	.084	1.000

Note. † P < .10. *P < .05. **P < .01. ***P < .001.